

지역 메아리

김제시드림스타트 응급처치 교육

김제시드림스타트(여성가족과장 심미란)에서는 저소득 서비스 제공 아동의 위급상황 및 부상발생에 대비하여 드림스타트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지난 16일 중앙 국제응급 E.R.P 교육센터의 후원을 받아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일상 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법과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구급활동 시례 소개 등 학령기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센터장 정창섭)는 지난 16일 고용복지공동교육관 1층 회의실에서 자원봉사단체장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자원봉사단체장 자원봉사 활동과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열렸으며, 정창섭 센터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17년 추진사업 실적 보고, 2018년 주요사업 계획 설명에 이어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클린김제 만들기, 자원봉사단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공모, 지역행사 지원, 자원봉사단체 현황조사와 단체 운영관리 안내 등 주요 협조사항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보건소, 출산준비교실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산부 특강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기존 출산준비교실에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산부 특강'을 신설해 매분기(3.6.9.11월) 두 번째 토요일 오전 10시 총 4회에 걸쳐 운영한다.

이날 프로그램은 예비부부 및 임신 준비 중인 부부 10쌍으로 부모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 신생아 관리 및 모유수유 방법을 습득할 예정이며 평일에 시간을 내기 힘든 맞벌이 임신부와 예비아빠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 운영하여 참여도를 높이고자 시작했다.

내달 4월 둘째주 수요일(11일)은 모유수유 간담회를 통해 모유수유 자제 및 아기의 오감을 자극해 성장발달 및 애착관계형성을 위해 베이비마사지 교실도 함께 운영 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재난사고시 보험혜택 받아

완주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전체 군민 최대 1000만원 보장

완주군민들은 재난사고시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6일 완주군은 불의의 재난사고를 입은 군민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왔으며, 이번 가입으로 전체 군민들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보험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보험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보장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애 ▲의료사고 법률지원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등 8개 항목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받을 수 있다.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보험 계약기간 중 정임하는 군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완주군은 향후 매년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할 계획으로, 주민들이 재난사고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은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이다"며 "군민이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모악산축제 38개 프로그램 최종 확정

4월 6일부터 8일까지

제11회 김제모악산축제가 오는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모악산(금산사) 일원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4개 분야 38개 프로그램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자연이 그려낸 어머니의 산, 모악산"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모악산 축제는 그동안의 벚꽃 축제와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모악산만이 가진 고유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한층 차별화되고 업그레이드 된 주민 참여형 문화 관광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17년 서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창출한 조류독감으로 인해 축제가 취소되었던 만큼 올해에는 더욱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축제 자체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오는 6일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생활문화 예술동호회의 '생활문화공감 콘서트'와 국악과 비보이의 퓨전 하모니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으면 오후 2시부터 개막식이 열려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이날 개막 주제공연은 "봄향(春香)"이라는 주제로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관광객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오전에는 사시사각 각양각색 그 매력적인 자체를 뽐내는 김제의 대표 명산 모악산을 알리기 위한 "모악산 마실길 걷기 대회"와 더불어 보건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치매 극복 건강걷기 대회" 역시 이날 함께 개최되어 모악산축제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에는 옛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홀리칸 추억의 노래7080 포

크송" 그리고 모악산 퀴즈쇼(부제 '모악산, 어디까지 알고있니?')를 진행하여 김제 모악산의 이모 저모를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김제 모악산 축제 특징은 19개 읍면동 주민들이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부스 운영으로 소득과 연계되는 축제로 진행된다는 부분과 김제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재장인들의 시연과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역시 구성되어 있다.

이후전 김제시장권한대행은 "이번 축제는 예년에 비해 많은 차별화가 예상되는 만큼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며, 김제모악산축제 기간 중 음식, 교통, 주차 등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김제의 산 모악산을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명산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공유재산 대부료 강력 징수

김제시가 공유재산 대부료 및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액을 강력 징수한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사유지 및 도유지 등 공유재산 대부시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1월 2018년 정가분 공유재산 대부료 690건 8700만원 부과했으나, 공유재산을 임대하고도 못 받은 체납액이 도유지 2건에 140만원, 시

유지 57건에 930만원, 변상금 1건 11만원 등 총 60건에 1081만원에 이른다.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을 전액 징수하였으며, 올해 역시 2년 연속 대부료 100% 징수 달성을 위해 체납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해 전화 및 문자를 통한 대부료 납부 독려하고 있으며,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 등을 조회 및

압류하는 등 맞춤형 징수 전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회 이상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대부계약 해지 절차를 이행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규계약 미체결 등 체납자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강신호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더불어 대부료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가족과 함께하는 케이크 만들기

완주군,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 운영

가족사랑의 날, 완주군이 가족과 함께하는 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열어 호응을 얻었다.

지난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양미)는 가족사랑의 날의 일환으로 지난 14일 저녁 7시 마더쿠기에서 가족과 함께 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9년부터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면서 직장에서의 정시퇴근을 권고하고 바쁜 주중에 하루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실천이 가족 사랑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센터는 이에 따라 다양한 가족사랑의 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이날에는 15개 가정의 참여를 통해 평소엔 자주 접할 수 없었던 롤링핀, 스페큘러, 젤머니 등

다양한 케이크 제조용 기자재를 사용해 가족만의 독특하고 개성있는 케이크를 만들었다.

다양한 모양의 케이크를 만들며 가족 간의 정을 쌓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가족은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부족하고 막상 놀아주려고 하면 무엇을 하고 놀아줘야 할지 막막했었는데 좋은 프로그램에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좋은 추억을 쌓게 됐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앞으로도 가족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은 내달 진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4월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전한 완주 사용신청 내달 13일까지 신청 접수

완주군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완전한 완주' 사용신청을 받는다.

지난 16일 완주군은 오는 4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완전한 완주' 사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와 생산시설을 둔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인 과 축산업협동조합 및 작목반 등 단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축산물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등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청서류는 사용신청서, 품질준수각서, 생산출하여건개요서 등이며, 신청서 접수가 마감되면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 한 후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완전한 완주'는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 완주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대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6년 상표등록을 한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이다.

지난 2016년에 21개 단체 36개 품목(농산물 27, 가공품 9), 2017년에 4개 단체 11개 품목(농산물 3, 가공품 8)에 대해 상표사용권을 부여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교통캠페인